

#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타고 광주 관광하세요”

### 광주시 ‘쉬어브로·즐거브로·느껴브로’ 3코스 출시 이달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일 운행 예정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정기노선을 출시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행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쉬어브로(자연힐링+미식)·즐거브로(미식+MZ니즈결합)·느껴브로(가족+전시) 등 3코스로 구성됐다. 매주 토·일요일 운행한다.

### 전남 시장군수들 ‘불가시나무’ 기념식수 ‘탄소중립 실천’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상생·화합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담아 불가시나무를 기념식수해 눈길을 끌었다.

14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제6차 정례회’ 기념식수로 불가시나무를 심었다.

22개 시군에서 직접 가져온 흙을 사용해 민선 8기 미래 도약을 위한 시군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

불가시나무는 참나무과의 넓은 잎과 키가 큰 나무이다. 전국 82%인 1천496ha가 전남에 분포해 자생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대포 일종인 천자총통 화살(대장군전)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예로부터 열매는 도토리묵, 목재는 화력이 좋아 펄갑이나 숯으로 활용됐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 18년에 숯을 공급한 기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나무다.

최근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숲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탄소흡수능력이 최고인 불가시나무의 가치가 높아졌다. 불가시나무의 탄소저장량은 소나무에 비해 1.7배 많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22개 시군이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불가시나무 기념식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며 “불가시나무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브로는 증심사와 포종사·공연마루를 잇는 코스로, 힐링가든휴에서 족욕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즐거브로는 미식과 MZ세대 수요를 결합해 만든 코스다. 양림동 곱목투어와 동명동 짬뽕투어에서 양조장체험을 한 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 남도달밭아시아(미운영때는 뷰폴리)를 도는 코스이다.

가족과 전시를 함께하는 느껴브로는 고려인문화관 ‘결’에서 미트로시카 쿠키만들기를 체험하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전일빌딩·뷰폴리로 채워졌다.

올해 시티투어버스는 화려한 색채와 창문을 활용한 트릭아트 디자인을 접목시켜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타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트릭아트에 지역 체류선수(양궁 안산·육상 김국영·육상 강다슬)가 달리는 모습을 멋있게 함께 달리고 싶은 역동적인 모습을 더했다.



김성배 관광도시과장은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타고 여행하며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보성서 교통안전 캠페인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3개 기관·단체 관계자 200여명은 14일 벌교역 광장과 전통시장

/전남도 제공

## “관광판도 바꿀 ‘광주~영암 아우토티반’ 적극 추진”

### 김영록 지사, 영암서 도민과의 대화·지역 현안·건의 청취

김영록 지사가 영암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티반(속도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티반이 건설되면 서남권 관광의 판이 바뀐다”며 “전남도도와 영암군이 긴밀히 협력해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전남도, 영암군 관계자와 영암군민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

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도와 김 지사의 혁신기조에 발맞춰 영암군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와 혁신으로 영암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며 “관광·문화·복지·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영암을 생태힐링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이날 영암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암·삼호읍권 야간경

관 조명사업 추진에 전남도가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소재지에 야간경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영암군민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군민들은 대불인조잔디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와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국가산단 보조사업 도비 부담비율 상향 등을 요청했다.

/김도기 기자

##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통과 시의회 “시교육청 지원 근거 담긴 조례안 통과” 시교육청 “지방교육 교부금법과 상충 반대” 입장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14일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의 조례안에는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으며 지도·감독과 사용내역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안교육학생이 시교육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됐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폐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 중단, 회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될 때 ‘부동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조례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상충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 김기현, 5·18 헌법전문 수록에 “긍정적 생각” “시기는 미정…양당 사이에서 의논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14일 “저도, 우리 당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약속했다.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회견과 만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돼 있어서 함께 잘 녹여서 개헌문제를 어떻게 정무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지,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양당 사이에

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를 해야 해서 시기가 언제라고 못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차 광주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 지도부의 광주 방문은 지난 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이후 28일 만이다.

/김도기 기자

## 광주 역대 민선시장 19일 한자리에 광주시, 민선8기 1주년 기념 초청 간담회

역대 광주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발전론을 논의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역대 민선시장 초청 시장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고재유·박광태·강운태·이용섭 전 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후 한 병원에서 일하는 윤장현

전 시장은 진료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역대 시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8기 1주년을 기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K-Health 국민의료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광주 병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ambulance)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투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